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세션 14, 필수 결과, 3부, 오순절, 예수의 중보, 재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여섯 가지 그림, 대속, 승리, 희생, 회복, 구원, 화해, 1부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9 구원 사역, 필수 결과, 3부, 오순절, 예수의 중보, 재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여섯 가지 그림, 대속, 승리, 희생, 회복, 구속, 화해, 1부, 화해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의 독특한 구원 사건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외롭고 필요한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오순절은 다른 9 가지 구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사실 그와 아버지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고, 새 창조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으며, 새 공동체에 성령을 공개적으로 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7:39에서 어려운 단어를 제시합니다. 인용문은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음으로다"입니다. 사실 문자 그대로는 "성령이 아직 없으셨음으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은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받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성령이 이전에 세상에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요한은 여기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15과 16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현실을 지적합니다. 예수께서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네 가지 진리가 포함됩니다. 첫째, 구원의 충만함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토대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 미래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처음으로 구원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업적은 구속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든 구원의 기초가 될 만큼 위대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순절은 세상에서 성령의 사역의 시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이전보다 더 위대하고 충만한 방식으로 구원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신클레어 퍼거슨은 이 진실을 포착합니다. 제가 인용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그의 특정한 경제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그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의 굴욕의 날들에,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 위에 있었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천 때,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이제 승천하신 구주의 영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으로 그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구속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예수는 부활하신, 입증된 주님으로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새로움과 권능으로 임합니다. 이는 인용문에서 오순절 회심자들부터 시작하여, 이것의 의미, 즉 완전한 새 언약 축복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들의 회심과 거듭남의 한 측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책은 그레이엄 콜의 책, 생명을 주시는 자입니다. 성령을 언급하는 부제가 있지만 그레이엄 콜은 위대한 정신, 관대한 정신, 그리고 역사적, 체계적 신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주해에 대한 진정한 강조점을 가진 훌륭한 호주 신학자입니다. 증거를 위한 새로운 능력은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여하심으로써 주어집니다.

웨인 그루뎀은 제자들이 오순절 날까지 사역을 위한 이 완전한 새 언약의 권능을 받지 못한다고 요약합니다. 이 새 언약의 권능은 제자들에게 증거와 사역에서 더 많은 효과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 에베소서 4:8, 에베소서 4:11-13. 모든 신자들의 삶에서 죄의 영향력을 이기는 데 훨씬 더 큰 권능.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2:20, 빌립보서 3:10. 그리고 신자들을 공격하는 사탄과 악령의 세력을 이기는 권능. 고린도후서 10:3-4, 에베소서 1:19-21, 요한일서 4:4. 본문에서 멈추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오순절에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성령을 부여하심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순절에 성령을 주실 때 새로운 공동체, 즉 신약 교회를 형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성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존경받는 개혁 신학자 헤르만 바빈 크는 이 문제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야 그는 교회를 자신의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성전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고, 세우고, 다시는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독립적인 존재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원 안에, 팔레스타인의 경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안에 살고, 온 지구로 확장하고,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는 성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에 의해 이제 시온의 성전에서 이동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 안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날 오순절에 선교와 세계 교회로 태어났습니다.

헤르만 바빈크의 위대한 신학, *개혁 신학*은 수년 동안 네덜란드어로 쓰여졌지만 영어로 번역된 것은 지난 10년 또는 15년 동안에 불과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는 매우 보수적인 네덜란드 교회에서 자랐고, 그가 한 일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우 안전하고 보수적인 교회 신학교를 떠나 매우 다양하고 사실상 자유주의적인 네덜란드의 거대한 세계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당시의 주요 자유주의자들 밑에서 공부했고, 믿음에는 확고했지만 현대 신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고 있어서 상처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 그는 견고합니다.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반의 자유주의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개혁주의 교리는 놀랍습니다.

세 권의 큰 책, 한 권의 축소된 책, 크기가 축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적인 구원 행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구원 행위에서 경외롭고 영구적인 효과를 낼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한 행위 중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의 반복할 수 없는 구원적 역사적 행위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재자로서 새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것을 비준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알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는 공개적으로 새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는 공개적으로 그의 교회에 영을 주어서 그것을 새로운 공동체로 구성했습니다.

작은 기화기 문제, 실례합니다. 우리의 다음 구원 사건은 예수님의 중재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승천과 오순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천은 지상 사역에서 천상 사역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그분은 하늘의 중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하늘의 중보 사역은 정확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분명히 그의 희생적 사역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의 희생적 사역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그는 그것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 사역은 그의 제사장 사역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를 위한 최후의 희생을 치른 후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교회에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구원 사건의 결과로, 그는 이제 구원하기 위해 온 죄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신 높임받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중보를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최후의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중보가 우리를 구원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믿음과 순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택함받은 자들이 믿음과 순종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로마서 8:29, 30).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한 가지

수단은 로마서 8:34에 나오는 그의 아들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는 아버지와 성령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사제적이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이며, 특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최후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상을 하셔야 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다면적인 문제는 다면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완전한 구원을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죄악의 전체 파노라마를 다루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 죽음, 부활, 세션, 그리고 영의 파송이 신자의 칭의에 필요하다면, 최종 구원까지 신자가 인내하는 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적 답은 이 모든 사건과 그의 중보와 재림입니다. 로마서 8:34에 나오는 그의 중보는 우리를 대신한 그의 기도입니다.

그의 중보는 내가 이전에 히브리서 7:25에서 이 강의에서 말했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신의 희생을 자신의 인격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그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하고, 따라서 그는 부활하신 분으로서 영원히 사시고, 지금은 승천하여 앉아서 중보하시는 분으로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그의 제사장 사역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의 희생을 끊임없이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 구세주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유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의 구원 사역의 절정입니다. 두 가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죄 없는 삶의 성육신입니다.

핵심 사건은 그의 죽음과 부활뿐이며,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하지만, 그 두 핵심 사건의 다섯 가지 필수적인 결과가 발생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여전히 발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 경이롭고, 놀랍고, 효과적이어서 그가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고,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로마서 8:34) 아버지 앞에 자신의 희생을 영원히 바치며(히브리서 7:24, 25) 그의 구원 사역은 완벽하고 마침내 그의 재림으로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여전히 Last Things에 관한 책이고, 저는 편파적입니다. 제가 인정하건대 그것은 Anthony Hoekema의 책 *The Bible and the Future* 입니다 .

기대를 인용하다 Hoekema를 인용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신약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며, 사실 신약 교회의 신앙은 이 기대에 의해 지배됩니다. 신약의 모든 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항상 그 재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살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와 같은 생생한 기대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를 특징지어야 합니다. 그는 50년 전에 그렇게 썼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토니 호케마 *성경과 미래* . 그러면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구원을 가져다주고, 그분은 구원 사역의 최종적 적용을 가져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역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지만, 이러한 사건들에 이어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최종적 성취를 촉발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돌아오실 때의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하는 적어도 일곱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재림은 우리가 그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 아버지 집 에는 많은 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장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했겠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장소를 준비하면 다시 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려고 내게로 데려가라.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많은 방이 있는 큰 집에 비유하신다. 그리고 나는 내 고향인 세인트루이스에서 소중한 친구들이 이사를 가고 아이들이 자라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우리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를 방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에게 화를 낼 거야.” 그들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의 이름이 이제 이 전 아이의 침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친구들이 다시 방문했을 때 얼마나 환영받을지 진지하게 보여주기 위해 웃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방을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하늘 집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알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가 그분께 속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도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와서 우리를 그분과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성령과 함께.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의 예수 재림에 대한 혼란을 해소할 때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예수 재림과 그 축복에 대해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은 너무 흥분해서 예수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들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의 죽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칠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그들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 있는 우리는, 남아서 죽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남아 있는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게로 오게 하리라 .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당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중간 단계와 마지막 단계 모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늘에서 육체가 없는 영적인 무형의 존재가 아니라, 새 땅에서 삼위일체와 모든 성도와 함께 부활하고 전체론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에게 영광을 가져다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4,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구절은 우리가 재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 열매 중 일부를 즐기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드러내실 때까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미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그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분이 합당히 받을 만한 영광을 가져다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생을 가져다줍니다.

양과 염소 구절 에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양과 염소라는 순서를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편지라인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과 순서를 뒤집어서 염소와 양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마지막 말씀에 강조점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5:31. 인자가 그의 영광과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서로 나누실 것입니다.

한 번입니다. 그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 번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장됩니다.

그러면 왕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양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와서 너희를 위해 준비된 왕국을 받아라.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자에게 봉사했을 때, 너희가 나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염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들이 그분의 백성을 궁핍한 가운데 사랑함으로써 참된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 염소, 양, 염소, 양, 염소, 그리고 46 입니다 .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 염소, 양, 염소, 그리고 양, 염소, 확장된 표현으로, 그리고 46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염소들이며, 영원한 형벌로 갈 것이지만,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삶으로 갈 것입니다. 두 운명은 같은 형용사인 *ainios*, 즉 영원한 것으로 수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의미하며, 시대는 문맥에 의해 정의되고,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 자신의 삶에 의해 정의됩니다.

지옥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천국, 천국의 행복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은, 즉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셨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양의 순서가 역전된 것은 강조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끌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마지막 단어는 영생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옷을 씻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피, 어린 양의 희생적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요한계시록 22:14.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발견되었고 성경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영원한 삶을 가져오십니다. 그는 기쁨을 가져오십니다.

같은 구절에서, 그들의 옷을 씻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참으로 행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것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기대의 기쁨은 실제적인 깨달음과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재림은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이것을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의 마음에 기쁨을 불어넣습니다.

주님과 구세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6 이하에 따르면, 그는 그분의 백성을 박해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환난을 받는 자들, 곧 너희를 환난하게 하는 자들에게 갚으시고, 예수께서 그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타오르는 불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도 안식을 베푸시는 것을 공의로 여기시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6~8. 둘째,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10.

데살로니가인 주변의 민족들과 그 주변 도시들은 여러분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이시요,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9, 10.

예수님의 재림은 왕국과 우리의 유업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로 되돌려줍니다. 양에게 그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 아버지께 축복받은 자들아.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왕국을 상속하라. 마태복음 25:31. 마태복음 25:34, 실례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가족과 왕족의 이미지를 결합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 왕국을 상속받으세요.

그것은 단지 은유를 아름답게 섞는 신의 방식일 뿐입니다. 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원을 위해 그의 아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신의 자녀가 되고 상속을 받습니다. 신은 또한 왕이시며, 그의 아들도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딸들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왕국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합치면, 우리의 유업은

바로 거룩한 삼위일체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몇 번 보았듯이 우주적 회복을 가져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말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의 청중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 결과는? 회개하는 청중들이 죄의 용서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임명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어 하늘이 모든 것을 회복할 때까지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20, 21.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의 백성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적 예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 번째 재림은 이사야 65:17, 66:22, 23에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9가지 구원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건은 스스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 일부는 십자가 발치에 서서 조롱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자신의 경전, 예를 들어 시편 22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오, 그 말은 나에게 소름 돋는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분명, 관련된 모든 군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백부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의 오른편과 왼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도둑 중 한 명이 믿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왕국에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당신이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그 사건을 지켜보고 실제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길 거라는 뜻 이에요 .

아니,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망쳤지만, 아마도 요한은 예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행동하는 신입니다. 그는 또한 말하는 신입니다. 그는 행위와 말씀 계시를 합쳐서 행위 하이픈 말씀 계시를 줍니다.

그는 행동하고, 그의 행동을 해석합니다. 그는 우리, 그의 백성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조, 반역, 구원 또는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 하위 집합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새로운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림책입니다. 그것은 사건을 주고, 사건을 말하는 이야기책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9가지 사건을 연구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지만 신은 또한 그 사건들을 해석하기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입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9개의 경이로운 사건들.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육신에서부터 모든 것.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신약의 주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림으로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석하는 주요 그림이 여섯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요.

모든 사진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에 대한 여섯 가지 주요 그림을 봅니다.

대체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의 백성을 위해 벌을 치르는 그림입니다. 승리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챔피언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적을 이기시고 지금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그가 돌아오실 때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에서의 승배, 즉 승배의 그림입니다. 제사장의 희생의 그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자 희생양이십니다.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 자신을 한번만 바치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새 창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은 것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을 통해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구원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과 부활로 포로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해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외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소외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것에 대한 반사적 행동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바울의 주요 텍스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화해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5:1-11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16-21. 에베소서 2:11-19. 그리고 골로새서 1:19-23.

우리는 이 그림들을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은유, 모티프, 이미지, 그림이 그려진 구체를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해는 개인적 관계의 영역에서 그려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적대감과 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과 친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의 아들을 통해 행동하셨고, 그래서 그의 원수들은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른 그림들과 달리, 이 그림은 구약성경적 배경이 없는 듯합니다.

그 배경이 2마카비서에 표현된 유대인 순교 전통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에 근거한 다른 다섯 그림과 달리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정의. 바울은 그것을 평화를 만드는 것 또는 평화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1:19-20.

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음이요, 그를 통하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음이니라. 화해는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해는 개인적 관계의 영역에 속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화해의 필요성은 깨진 관계, 말하자면 깨진 관계입니다. 로마서 5:10.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썼습니다.

골로새서 1:21.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지고 적대적이었습니다. 화해의 시작자와 목표는 다음에 고려합니다.

바울에서, 불쾌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가끔 목사로 일한 저는 목사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교수였고, 지금은 은퇴한 교수로, 다른 주의 다른 교회에서 10번 정도 임시 목회 사역을 했고, 그것을 철저히 즐겼습니다. 가끔은 결혼 상담을 하라는 부름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산 속의 모하메드와 같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 제가 알기로 남성의 우두머리는 남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리더로서 자신을 낮추는 데 앞장섭니다.

네, 양쪽에 죄가 있고 때로는 정말, 정말 쌓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주도권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실 필요는 없었지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화해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 즉 불쾌하신 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화해를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5:18 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화해에 대해 말하는 1세기 그리스어 맥락에서 구약이 아니라 그리스어가 화해를 말하는데, 진짜 그리스어 전문가인 스탠리 포터의 말을 인용하면 놀랍게도, 바울은 화해를 시작한 당사자인 신에 대해 말한 최초의 그리스어 저자로, 동사의 능동태를 사용하여 화해를 시작한다고 인용합니다. 포터는 우리에게, 인용합니다, 사실 , 화해의 시작자는 항상 신입니다. 이것이 제 말입니다. 이제 실례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 고린도후서 5:18-19, 골로새서 1:20, 그리고 때로는 아들 , 에베소서 2:14-16. 하나님 자신은 화해의 시작자일 뿐만 아니라 그 목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 20절에서 화해 동사가 사용된 모든 경우에서 그 행위의 대상 또는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쯤 제 신학적 방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고, 저는 그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 신학적 움직임은 근거가 있고, 그것을 고려하고, 증거를 가지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강의에서 훨씬 이전에 제가 속죄 교리의 역사에 대한 훌륭한 저술을 쓴 H. Dermot McDonald는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고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14절에서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평화 또는 평화 조성자입니다.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의 신성은 골로새서 1:19에서 가르쳐줍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의 인간성은 그의 십자가의 피, 그의 육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강조됩니다. 모든 화해 구절, 네 구절 모두 그리스도가 화해의 중재자임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전치사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화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1,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13,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방인인 너희는 가까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18,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에게 화해시키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골로새서 1:19, 20.

이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에게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셨음이니라. 구원의 중보자는 네가 보는 모든 면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특히 화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실, 화해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우리의 신학적 원리 중 하나인 그리스도론의 소개를 보여줍니다.

그의 인격과 사역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화해의 사역, 속죄에 대한 초점은 그의 부활이 아니라 속죄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로마서 5:10). 십자가를 통해(에베소서 2:16). 십자가의 피와 그의 육신의 몸으로 그의 죽음으로(골로새서 1:20, 22). 한 곳에서 바울은 화해의 근거로 예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5:10은 그의 화해 사역에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었거든, 이제 우리가 화해되었으니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더니라. 그러나 이 본문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를 그의 죽음과 부활로 나누는 것은 실수입니다.

오히려 슈라이너가 옳습니다. 로마서 5:11은 로마서 4:25를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범위.

그리스도의 화해 구원 사역은 너무나 위대해서 여러 수준에서 작용합니다. 개인적, 단체적, 우주적. 개인적 화해는 죄인들을 한 번에 한 명씩 하나님의 가족으로 데려옵니다.

기업 화해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집단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레이엄 콜의 코멘트는 간결합니다. 적대감은 포용으로 자리를 내줍니다.

우주적 화해는 인용하자면,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에베소서 1:10 .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통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 자신과 화해시켰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골로새서 1:19, 20. 이 보편적인 연합은 하나님의 우주에 조화나 화해를 가져다줍니다.

그것은 권세의 복종(골로새서 2:14)과 교회의 연합(에베소서 2장)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우주적 화해는 성경의 진리와 모순되는 보편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측면.

바울은 화해의 두 가지 분리할 수 없는 측면을 구별합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취, 즉 빈 무덤이 화해의 기초입니다. 둘째, 화해에는 화해 속죄를 전파하는 기독교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맡기셨습니다(고린도후서 5:18-19). 우리는 이러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을 각각 화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화해시킵니다.

주관적으로,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화해의 대사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설가인 더글러스 무는 두 측면을 구별하거나 분리하지 않는 건강한 균형을 이룹니다.

인용문, 바울의 화해에는 두 가지 측면 또는 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성취와 신자가 완성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초점은 이러한 순간 중 하나 또는 다른 순간에 맞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화해 활동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절인 로마서 5:10에서 완전한 과정이 보입니다. 하나님도 화해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화해하셨고 이것이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는 것보다 더 기본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소외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해야 했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와 화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도 하나님 편에 장벽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는 우리의 죄와 그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우리와 화해해야 합니까? 유명한 신약학자인 I. 하워드 마셜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서 최후의 심판의 현실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곤경의 절대적으로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출발점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우리와 하나님 모두의 곤경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존 스토틀가 설명하듯이, 인용문, 신약에서 화해라는 동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는 우리를 그 자신과 화해시켰고, 동사가 수동태인 경우 우리는 그와 화해되었다.

결코 신이 대상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우리를 화해시켰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형식적으로, 언어적으로,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구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해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전적으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적대적이었지만, 적대감은 양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나 장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반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로 구성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쪽이 완전히 무고한 부부 싸움을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있고,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이었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대감이 있다는 사실과 인간 관계에서도 양쪽에서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Doug Moo도 동의합니다.

바울은 이 말로 단순히 우리 반항적인 죄인들이 하나님께 적대적이며, 그의 법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그의 자리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에서 반복해서 확인했듯이, 로마서 1:18, 3:25, 하나님은 또한 적대적입니다. 인용 부호를 붙이면, 저는 우리에게 정당하게 적대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는 정당하게 그의 진노를 초래했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고로 남습니다.

로마서 1:19, 32. 심판의 날에 절정적으로 수행될 것임, 2:5.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적대감, 로마서 5:10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과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에서 그 지위나 관계가 변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그의 자녀로 바뀝니다, 로마서 8:14-17.

무의 결론은 로마서의 더 큰 맥락과 로마서 5:9, 10의 직접적인 맥락에서 모두 옳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해야 합니다. 신비롭게도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은 신을 화해시킨다. 나는 신비롭게 말한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신의 일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한다고 가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레온 모리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는 것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만한 신학은 하나님의 왕국에 자리가 없습니다. 오, 세상에. 만약 이 진리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우리를 경배자로 만들고, 주님 없이 어리석은 짓과 끔찍한 짓을 하는 동료 죄인들을 이해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었을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는 로마서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화해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를 하나님께 적용할 때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언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과 화해하셨다고 말할 때, 이는 여러 가지 불완전성 때문에 그분이 사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비록 그가 모든 모양과 형태의 죄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반응하여 인간이 그의 정죄 아래 있게 되지만, 화해가 이루어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정죄가 제거된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우리의 모색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더 이상 그의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많은 것을 기억에 남게 말했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셨을 때 그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는 것은 동시에, 그러나 논리적으로 먼저 자신과 화해시키신 것에 대한 반사적 행동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이 여섯 가지 성경적 그림 중 하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주요 그림, 즉 구속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의 것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9 구원 사역, 필수적인 결과, 3부, 오순절, 예수의 중보, 재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여섯 가지 그림, 대속, 승리, 희생, 회복, 구속, 화해, 1부, 화해입니다.